

부산·대구 찍고 서울로... 갤럭시10 팬파티, 전국 '들썩'

삼성전자, 팬들 아이디어로 연출
23~24일 서울, 30일 대전서 진행
타이거JK·장범준·샘김 등 공연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10.5G' 국내 출시를 기념해 '갤럭시 팬 파티'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4회차를 맞는 갤럭시 팬 파티는 색다른 프로그램과 탄탄한 라인업으로 더욱 특별하게 구성됐다.

지난 16일 부산에서 막을 연 이번 갤럭시 팬 파티는 갤럭시 팬들이 직접 만든 콘텐츠와 아이디어로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갤럭시 팬 파티가 개최되는 5개 도시의 대학생 팬들이 '도시별 밀레니얼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직접 제작한 영상으로 파티를 시작한다.



갤럭시 노트10+ 아우라 글로우. /삼성전자

갤럭시 팬 파티 현장도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을 반영해 더욱 감각적으로 구성된다. 갤럭시 팬들은 팬 파티 공간 어디에서나 인생샷을 남길 수 있고, 유명 아티스트 '노보(NOVO)'와 함께 제작한 네온 타투 스티커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를 사랑하는 팬스



지난 17일 대구 북구 빌리웍스에서 진행된 '갤럭시 팬 파티'에 참석한 갤럭시 팬들이 공연을 즐기는 모습. /삼성전자

페셜리스트와의 협업도 더욱 강화해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요리하는 연출가 이육정 PD는 5개 도시의 대표 재료와 팬 스토리를 결합한 밀 박스를 선보인다.

예능인 홍윤화·김민기 부부, 흥현희·제이슨 부부가 팬들이 직접 응모한 팬 스토리를 소개하고, 방송인 박준형씨는 팬 피트니스 영상을 통해 팬들과 함께 소통한다. 힙합 뮤지션 타이거 JK와 윤

미래는 팬 스토리를 주제로 만든 음원을 '팬 스토리 라이브' 무대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며, 이 외에도 김하은, 장범준, 샘김 등 밀레니얼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꾸민다.

이 밖에도 팬 파티를 기념해 노보가 디자인한 미니잔을 특별 굿즈로 제공한다.

갤럭시 팬 파티는 부산, 대구에 이어 서울(8월 23일~24일, 블루스퀘어), 대전(8월 30일, 롱디커피), 광주(8월 31일, 커뷰)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갤럭시 팬 파티는 '갤럭시 노트10.5G·갤럭시 노트10+ 5G' 사전 예약자를 포함해, 갤럭시의 팬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착한가격에 성능 '굿' 소비자 호평



쉐보레 '이쿼녹스'

상반기 국내 판매량 '동급 최대'
뒷좌석 원터치 폴딩시스템 적용



쉐보레 이쿼녹스 실내모습.

쉐보레 이쿼녹스가 수입차 시장에서 '가격·디자인·성능'을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쉐보레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이하 KAIDA)의 회원 가입을 결정하면서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모델들이 정식 수입차 신분을 취득한 덕분이다. 그 동안 수입차와 국산차 사이에서 애매했던 분류를 명확히 한 것으로, 수입 판매 중인 이쿼녹스에 대한 이미지와 소비자 인식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국산차라는 인식 때문에 외면 받았지만 이제 수입차로 분류되면서 소비자들의 시선도 바뀌고 있다.

이쿼녹스는 '착한가격'을 앞세워 올 상반기 국내서 총 1083대를 판매했다. 이는 동급 수입 중형 SUV인 지프 뉴 체로키(950대), 혼다 CR-V(921대), 도요타 RAV4(795대)의 판매량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외한 동급 수입 중형 SUV 가운데 가장 높은 판매량이다. 이쿼녹스의 시승을 통해 차량의 숨은 매력을 알아봤다. 시승은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경기 파주 인진각 공원을 왕복하는 110km 구간에서 진행했다.

이쿼녹스의 외관은 강인한 인상을 준다. 굵직굵직한 캐릭터 라인이 근육을 연상케 하는 볼륨감을 만들어낸다. 쉐보레의 디자인 언어인 '린 머스쿨러티'를 적용한 덕분이다. 이를 통해 늘씬하면서도 굴곡이 있는 '잔 근육'처럼 역동적이고 세련된 외관디자인을 연출한다.

실내 디자인은 쉐보레 특유의 듀얼록핏 디자인을 이어받아 안락함을 강조했다. 천연 가죽을 포함해 크롬 등 다양한 소재와 컬러를 조합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공간을 연출했다. 실제로 이쿼녹스의 실내공간은 '2018 워즈오트 10대 인테리어'에 선정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실내 공간은 넉넉했다. 1열 공간의 여유는 물론 2열도 레그룸과 헤드룸의 공간성이 뛰어나 키 큰 성인이 탑승해도 불편하지 않았다. 적재공간은 원터치 버튼 조작으로 2열 시트를 평평하게 접을 수 있는 뒷좌석 원터치 폴딩 시스템이 적용돼 1800L의 적재 공간을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ysw@



쉐보레 이쿼녹스 주행모습.

LCC, 동남아·괌·대만 '노크'

에어서울 항공기.

중, 국내항공사 신규취항 금지조치 국토부, 靑 신규노선 지원 TF 운영

일본 여행거부 운동을 피해 중국 노선에 집중하려 했던 국내 LCC(저비용 항공사)가 중국 정부의 거부로 중화권을 피해 동남아시아, 괌, 대만 등 노선에 증편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자국에 취항하는 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신규 취항 및 증편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국내 항공사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중국 전 노선에 대해 신규 취항 및 증편·임시 증편, 부정기편 운항을 할 수 없다.

당초 국내 LCC들은 일본행 여행객 수요 감소로 중국 노선을 증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중국 측의 이번 결정으로 취항 일정을 뒤로 미루거나 조정하게 됐다.

8월 중 중국 6개 노선을 취항하겠다

고 했던 제주항공은 ▲인천-하얼빈 ▲부산-장자제 ▲무안-장자제 등 3개 노선이 막혔다. ▲인천-엔지 ▲무안-엔지 ▲인천-난통 등은 제외다. 티웨이항공은 ▲대구-장자제 노선 ▲대구-엔지 노선, 이스타항공은 ▲인천-장저우 노선 ▲청주-장자제 노선 취항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이에 LCC들은 중국 노선이 아닌 동남아, 괌 등 타 노선 증편 계획을 발표 중이다. 우선 오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아세안(ASEAN) 지역 LCC 신규 노선 개설 지원 TF'에 신규 노선 개설 지원서를 제출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국내 항공사들에 신남방 정책에 부응해 아세안 지역과의 항공연결성 강화, LCC의 노선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아세안 지역 LCC 신규노선 개설 지원 TF'를 운영한다고 알린 바 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공모 후 다음달 2개 내외의 노선을 선정하고 노선개설을 지원할 TF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일본에서 발생하는 에어서울은 동남아 노선을 증편하겠다는 계획을 준비 중이며 인천-괌 노선의 주간편 증편 기념 특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어부산은 오는 20일부터 부산-타이베이 노선을 기존 주 7회에서 주 10회로 늘려 운항하기로 했으며 티웨이항공은 다음달 6일 부산-가오슝 노선을 시작으로, 12일 부산-타이중 노선에 신규 취항해 지방공항을 통한 새로운 하늘길을 순차적으로 넓혀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연내 추가로 동남아 노선 취항 계획을 밝혔다. 진에어는 국내선, 제주발 국제선 증편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인천공항 기준 8월 3주차 일본 노선 여객은 1년 전보다 3.9% 감소한 22만9000명으로 알려졌다. 국내 LCC들은 하계 스케줄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60여 곳의 일본 노선을 중단하거나 감편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티웨이항공 "10만원으로 사이판여행 가요"

오늘부터 동남아 '메가 얼리버드'

티웨이항공은 동계 항공권 초특가 판매 이벤트인 '메가 얼리버드'를 지난달에 이어 2차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2차 메가 얼리버드 이벤트는 19일 오전 10시부터 25일까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앱에서 국제선 15개 노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구와 부산 출발 노선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과 제주 출발 노선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를 시작한다.

국제선 특가 운임은 편도 총액운임(유류세, 공항세 포함) 기준 3만7700원

부터 판매하며, ▲대구-다낭 7만7100원~ ▲부산-다낭 8만100원~ ▲대구-세부 8만3600원~ ▲대구-방콕 9만9020원~ ▲인천-사이판 10만570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메가 얼리버드 항공권의 탑승 기간은 오는 10월 27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다.

이번 메가 얼리버드 기간 내에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왕복 항공권 구매 시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카카오페이나 KB국민카드 15만 원 이상 결제 시 1만 원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티웨이항공은 초과 수하물 신청, 사전 좌석지정, 기내식 사전예약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선보이고



메가 얼리버드 이벤트 이미지. /티웨이항공

있는데, 초과 위탁 수하물을 사전 구매 시 5천원 할인 가능한 쿠폰도 다운받을 수 있다. 더불어 19일부터 25일까지 인천-가오슝 노선 증편 기념 특가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하며, 9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탑승 가능한 항공권을 편도 총액 5만6400원부터 판매한다.

/정연우 기자